

2015 / 09 / 22 (TUE)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소폭 하락.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모건스탠리 2.3%, 노무라 2.2% 등)되며 투심 위축.

라인의 IPO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NAVER의 약세로 인터넷 업종이 1% 이상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신세계 I&C, 웹젠 강세. 반면 동반매도세가 나타난 NAVER 약세.

종목별로는 미국 내 자회사 리젠트리가 개발 중인 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첫 피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지트리비엔티가 2.5%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다음카카오	22 억	SK	-44 억
아프리카TV	13 억	파티게임즈	-15 억
웹젠	11 억	더존비즈온	-14 억
엔씨소프트	7 억	한국정보인증	-10 억
SK컴즈	6 억	선데이토즈	-10 억
조이맥스	5 억	처음앤씨	-9 억
포스코 ICT	4 억	컴투스	-9 억
엠게임	4 억	코나아이	-8 억
이니텍	4 억	SGA	-6 억
인피니트헬스	3 억	엔텔스	-5 억
다우기술	3 억	엑토즈소프트	-5 억
한글과컴퓨터	3 억	유비벨룩스	-4 억
바른손이앤에	2 억	NAVER	-4 억
슈프리마	2 억	한국사이버결	-3 억
KG이니시스	2 억	NHN엔터	-3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51 억	SK	-167 억
NHN엔터	25 억	NAVER	-50 억
컴투스	23 억	레드비씨	-31 억
더존비즈온	10 억	엔씨소프트	-23 억
신세계 I&C	6 억	다음카카오	-19 억
웹젠	3 억	한국정보인증	-12 억
한국사이버결	2 억	한글과컴퓨터	-12 억
사람인에이치	1 억	다우기술	-10 억
민앤지	1 억	위메이드	-8 억
KG모빌리언스	1 억	아프리카TV	-7 억
크레듀	1 억	이니텍	-7 억
골프존	1 억	선데이토즈	-6 억
케이아이엔엑	1 억	비트컴퓨터	-6 억
안랩	0 억	브리지텍	-3 억
KT뮤직	0 억	인피니트헬스	-3 억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27.68	-2.1%	-17.8%	-925 억	-522 억
(코) 인터넷	20,629.14	-0.4%	8.2%	19 억	-18 억
(코) IT S/W&SVC	2,269.76	0.1%	13.5%	-18 억	-96 억
(코) 소프트웨어	337.01	0.2%	37.4%	-14 억	-81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00,000	-1.8%	-29.8%	-4 억	-50 억
다음카카오	124,700	-0.6%	0.9%	22 억	-19 억
한국사이버결	35,100	-0.1%	31.5%	-3 억	2 억
KG이니시스	21,200	0.0%	18.4%	2 억	0 억
KG모빌리언스	15,700	0.0%	7.9%	-1 억	1 억
사람인에이치알	24,100	-3.0%	115.2%	-1 억	1 억
KTH	9,700	-1.0%	26.8%	-1 억	-1 억
아프리카TV	34,250	0.9%	28.0%	13 억	-7 억
SK컴즈	7,160	7.7%	7.7%	6 억	-
KT뮤직	5,420	-3.2%	0.6%	0 억	0 억
다날	10,300	0.0%	27.2%	0 억	-
예스24	12,700	-0.8%	82.2%	2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85,000	-0.2%	-2.9%	2 억	51 억
SK	252,500	-0.4%	18.3%	-44 억	-167 억
다우기술	30,300	0.0%	153.6%	3 억	-10 억
포스코 ICT	5,480	0.0%	3.4%	4 억	0 억
신세계 I&C	151,000	4.9%	34.8%	-3 억	6 억
동부	6,690	-4.4%	166.5%	0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0,500	-1.0%	4.7%	7 억	-23 억
컴투스	111,000	0.9%	-7.9%	-9 억	23 억
NHN엔터테인먼트	64,700	0.8%	-23.5%	-3 억	25 억
웹젠	31,400	3.0%	8.1%	11 억	3 억
위메이드	45,550	-2.7%	20.5%	-3 억	-8 억
선데이토즈	15,900	-1.2%	-7.6%	-10 억	-6 억
엑토즈소프트	39,950	-3.0%	19.3%	-5 억	0 억
게임빌	70,200	0.3%	-41.8%	-1 억	0 억
네오위즈게임즈	18,700	-2.6%	-17.8%	-1 억	0 억
넥슨지티	11,950	-0.4%	-6.3%	-1 억	0 억
데브시스터즈	28,850	0.5%	-39.6%	0 억	-
조이시티	23,200	-0.6%	14.9%	-1 억	0 억
파티게임즈	53,100	-4.0%	103.8%	-15 억	0 억
조이맥스	19,400	1.8%	-28.9%	5 억	-
한빛소프트	7,090	-1.0%	22.5%	1 억	-
와이디온라인	6,310	-2.8%	36.6%	0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2,150	-4.1%	25.1%	-8 억	-2 억
더존비즈온	20,250	0.2%	117.7%	-14 억	10 억
한글과컴퓨터	23,500	-1.5%	16.3%	3 억	-12 억
골프존	87,500	-0.3%	246.5%	-1 억	1 억
안랩	44,150	0.6%	22.6%	-2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8,250	-1.4%	425.2%	-10 억	-12 억
슈프리마	23,100	-2.9%	-9.2%	2 억	-2 억
갤럭시아컴즈	6,470	-1.8%	138.7%	0 억	-
지트리비엔티	12,200	2.5%	253.6%	-1 억	-1 억
MDS테크	25,600	-0.2%	23.7%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2,600	-3.1%	-5.3%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9,210	-0.2%	27.2%	3 억	-3 억
케이사인	3,770	10.6%	53.3%	0 억	0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1.71	0.3%	-3.6%
MSCI Internet	173.14	0.5%	13.4%
MSCI IT Services	120.32	1.1%	2.2%
MSCI Software	159.58	1.0%	-2.5%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66.98	0.9%	25.7%
Facebook	95.55	1.2%	22.5%
Tencent	133.80	-1.1%	18.9%
Baidu	140.84	-1.2%	-38.2%
Yahoo	31.17	1.4%	-38.3%
LinkedIn	198.58	-2.2%	-13.6%
Twitter	27.38	-2.1%	-23.7%
Weibo	11.81	-2.3%	-17.1%
SINA	39.11	-1.7%	4.5%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46.48	1.4%	-8.7%
TCS	2,551.05	0.0%	-0.3%
Accenture	98.43	0.9%	10.2%
HP	26.44	-0.4%	-34.1%
Infosys	1,104.65	0.0%	12.0%
Wipro	592.20	0.0%	6.7%
NTT Data	6,020	0.0%	33.3%
Fujitsu	589.40	0.0%	-8.5%
CSC	61.41	0.9%	-2.6%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1,055	0.0%	67.0%
EA	70.58	0.7%	50.1%
Blizzard	31.52	1.4%	56.4%
NEXON	1,615	0.0%	43.6%
NAMCO	2,905	0.0%	13.3%
King	13.96	0.2%	-9.1%
Konami	2,551	0.0%	14.9%
Square Enix	2,950	0.0%	17.6%
GungHo	375	0.0%	-15.0%
DeNA	2,305	0.0%	59.4%
Sega	1,247	0.0%	-19.9%
Take-Two	29.93	1.4%	6.8%
Zynga	2.50	-0.8%	-6.0%
Ubisoft	17.83	3.4%	17.5%
Gree	559	0.0%	-22.8%
Changyou	19.50	2.5%	-28.7%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4.11	1.4%	-5.0%
Oracle	36.83	1.2%	-18.1%
SAP	65.09	0.2%	-6.5%
EMC	24.15	0.2%	-18.8%
Salesforce	72.14	1.0%	21.6%
Adobe	83.32	2.5%	14.6%
Vmware	79.83	0.9%	-3.3%
Syntac	86.81	1.5%	-5.8%
Intuit	20.26	0.4%	-21.0%
CA	27.75	0.7%	-8.9%
Citrix	72.91	0.8%	14.3%
Autodesk	47.41	2.0%	-21.1%
Synopsys	47.72	0.8%	9.8%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NAVER	-1.8%	최근이슈

News & Issue

네이버, 라인 美·日 상장 검토 "확정된 사항 없어"

18일 네이버는 주요 종속회사인 라인(LINE)의 해외증권시장 상장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일본 및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최종 상장 여부, 상장 거래소 및 상장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힘. 투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중국증시 폭락 등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 등으로 인해 상장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및 일본증시 동시 상장계획을 보류. 지난 2분기 처음으로 매출이 줄어들며 성장성이 정체된 데다 글로벌 투자심리도 식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올해 미국과 일본증시에 상장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상장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하기로 함. 라인 상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난 2분기 실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면 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올 연말 실적을 확인한 뒤 재추진 하기로 했다"며 "연말 재무제표가 나오는 내년 1분기가 상장 시점"이라고 언급.

지난해 3분기 238억엔, 4분기 258억엔, 올해 1분기 281억엔으로 꾸준히 늘었던 라인 매출은 올 2분기 278억엔으로 성장세 둔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요 4개국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대형시장에서 고전했기 때문.

올 2분기 라인의 전 세계 월간활성이용자(MAU)수는 전분기 대비 600만명 증가한 2.11억명을 기록. 네이버는 지난해 라인의 미국 및 일본증시 동시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당국과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금융투자회와 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상장주관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해외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연내 상장을 보류한다고 밝힘.

올 들어 지난 4월 일본에서 상장 절차를 재개하면서 이르면 올 중반까지는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도 상장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연내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중국증시 폭락 등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도 IPO를 주저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힘. 실제 상장을 준비하던 일부 기업들이 IPO를 연기했고, 기술주가 투자심리 하락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트위터와 알리바바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함.

반면 올 3분기부터는 라인 실적이 회복되고 있어 내년 1분기에는 다시 상장을 추진할 만하다는 것이 IB업계의 분석. 일본의 광고와 게임매출 증가, 원·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라인 매출은 호조세를 나타낼 전망.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아프리카TV	0.9%	최근이슈

News & Issue

아프리카TV, 이용자 참여형서비스 '뽐' 론칭

21일 아프리카TV는 개인방송진행자(BJ) 팬들이 만든 재미있는(FUN)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는 '뽐(FFOM)' 서비스를 내놨다고 밝힘. 뽐은 생방송이나 주문형비디오(VoD) 등 아프리카TV 콘텐츠를 이미지나 움짤(GIF234), 텍스트를 조합한 형식으로 재생산하는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 PC와 모바일 웹, 아프리카TV 모바일 앱에서 글을 작성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도 공유 가능. 주목할 점은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로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업로드 도구를 지원한다는 것. GIF234 포맷을 포함한 이미지와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음.

이용자가 평소 소개를 원하는 BJ 모습이나 방송 뒷이야기 등을 직접 발굴해 이야기로 작성할 수 있음.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른 게시글과 팔로잉한 회원정보 등은 PC와 연동해 어디서나 확인 가능. 김은성 아프리카TV 콘텐츠기획 PM은 "뽐은 이용자가 BJ 방송을 각색해 2차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서비스"라며 "다른 SNS로 공유돼 재미있는 콘텐츠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언급.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지트리비엔티	2.5%	최근이슈

News & Issue

지트리비엔티, 美 자회사 통해 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3상 투여

지트리비엔티는 21일 미국 내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 LLC)를 통해 개발 중인 안과 희귀질환 신경영양성각막염 치료제 신약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첫 피험자를 대상으로 투여를 시작하였다고 밝힘. 이 신약은 'Thymosin beta4'를 주성분으로 한 점안제(GBT-201/RGN-259)로 현재 미국에서 안구건조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도 동시에 진행 중.

이로써 지트리비엔티는 국내 바이오·제약 업체 중 미국에서 서로 다른 적응증(Indication)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 2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약 개발사가 됨. 회사 측은 임상 3상 결과가 도출되는 다음해 3~4월 경 미국 내 안과 전문 바이오 벤처로서 그 위상을 확실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

희귀질환인 신경영양성각막염 3상 임상시험은 각막의 심각한 천공으로 위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지난 17일 첫 환자에게 투여한 후 미국 전역의 총 10여개 기관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에는 미 동부지역 최고 의과대학 부속병원 두 곳도 참여.

심각한 신경영양성각막염 환자의 경우 현재 위아래 눈꺼풀 봉합수술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 GBT-201이 신경영양성각막염 환자를 위한 최초의 치료제로 미국 시장에 출시될 경우, 희귀의약품에 주어지는 7년의 독점기간을 보장받음.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Adobe	2.5%	실적발표

News & Issue

어도비, 3Q EPS 컨센서스 상회하며 강세

어도비 시스템즈의 3분기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상승세 지속. 어도비는 17일 3분기 EPS가 0.54\$로 전년동기(0.28\$) 대비 92.9%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컨센서스(0.50\$)도 상회하는 수치. 지속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자 증가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사용자 증가에 힘입어 12.2억달러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이는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 에버코어, 제프리스 등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추가강세 지속.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모바일서 전략게임 강세, '난투' 인기작 합류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전략 장르가 강세다. 지난 몇 년간 '클래시오브클랜'이 독점하다시피 한 전략게임 시장을 넥슨의 '도미네이션즈'가 양분하는 수준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림. 두 게임 모두 구글·애플 앱 마켓 매출 10위 내에 링크. 이번엔 쿤룬코리아의 '난투'가 매출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인기작 대열에 합류. 난투는 전략 장르의 일종인 적진점령(AOS)게임.

21일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부문 최고매출 순위에 따르면 클래시오브클랜이 5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미네이션즈가 8위, 난투가 15위를 기록. 같은 날 애플 앱스토어 아이폰앱 매출 순위에선 클래시오브클랜이 5위, 도미네이션즈가 7위, 난투가 13위.

이번처럼 모바일 전략게임이 앱 마켓 매출 상위권에 한꺼번에 이름을 올린 적은 처음 있는 일. 그동안 국내에서 전략게임 출시 자체가 뜸했기 때문. 앞서 언급한 3종 게임도 모두 해외 업체들이 제작. 이들 3종 게임의 흥행으로 국내 업체의 전략게임 제작 사례가 늘어날지도 관심사.

도미네이션즈는 '모바일 문명'으로 입소문을 탄 게임. 북미·유럽에 선출시된 버전을 상당수 국내 이용자들이 미리 내려 받아 즐기기도 함. 그 만큼 콘텐츠 완성도와 재미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게임. 수익모델 평가도 후한 편. 도미네이션즈엔 국내 대다수 모바일게임이 채용 중인 확률형 아이템이 없음. 과도한 결제 유도가 없다는 게 이용자들의 평.

난투는 지난 10일 출시돼 구글플레이 매출 60위권으로 첫 진입한 뒤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중국에서 크게 흥행했고 현지에서 콘텐츠 검증을 거친 상태라 국내 흥행 여부가 주목받아 옴. 특히 난투는 네이버의 모바일게임 마케팅 프로젝트인 '워드 네이버(with NAVER)' 제휴작이라 시장의 관심이 더욱 집중됨.

일단 난투의 초반 흥행은 네이버 덕분이라 봐도 무리는 아님. 유명 배우 정우성, 고준희를 앞세운 광고부터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전방위 배너노출 등이 진행되면서 초반 이용자 유입에 상당한 보탬이 됨. 난투 출시 전까지 마케팅은 전액 네이버의 지원으로 이뤄짐. 쿤룬코리아도 난투 자체 마케팅을 강화 중.

난투는 전략 요소인 AOS와 RPG가 결합된 것이 특징. 이용자들이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인기 요인 중 하나. 쿤룬코리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난투의 RPG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음. 지난 20일 기준으론 전체 이용자 중 90%는 RPG를, 45%는 AOS모드를 즐김. 회사 측은 RPG모드에서 영웅을 성장시킨 뒤 대전(AOS)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AOS모드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 따라서 이후 매출 순위 변화도 주목.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2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9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9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